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的 基礎에 對한 一試論

—특히 『鹽鐵論』에 보이는 儒法論爭을 중심으로—

金 翰 奎*

- | | |
|------------------------|---------------|
| 1. 머리말 | ② 義와 利 |
| 2. 『鹽鐵論』에 보이는 德化論과 征伐論 | ③ 內와 外 |
| 3. 德化論과 征伐論의 理論的 根據 | ④ 古와 今, 言과 行. |
| ① 仁과 法 | 4. 맺는말 |

1. 머 리 말

이 論文은 이른바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的 基礎가 형성되는 思想史的 過程의 하나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中國의 傳統의 對外關係를 결정하는 思想的基盤을 가리켜 中華主義 혹은 中華思想이라 불러 왔으며 그것이 中國의 文化的 優越性을 강조하는 독특한 華夷觀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¹⁾ 그러나 우리는 中華主義 혹은 中華思想이 형성·발전되는 思想史的 過程이나 그 理論的 基礎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中華主義란 원래 특정한 思想家集團에 의해 조직된 思想體系라기 보다는 차라리 장구한 시간을 통하여 형성·발전된 中國人의 일반적 世界意識 혹은 世界觀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意識이나 觀念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中國의 對外政策을 결정하는 원동력의 하나로 작용하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1) 全海宗, 『歷史와 文化』(一潮閣, 1976), pp. 11~13, 63~65, 75.

게 될 때, 中華主義는 中國에서 발생한 다른 思想體系로부터 理論的 根據을 제공받아 일종의 擬似“主義” 혹은 擬似“思想”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儒家의 德治思想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道家 혹은 法家, 심지어는 墨家思想과 陰陽思想 등도 中華主義의 思想의 形成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中華思想을 구성한 복합적 諸要素들을 추출·분석하여 그 理論的 基礎를 정리하고, 나아가서는 中國의 世界秩序의 思想의 背景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와같은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西漢時代에 성립된 『鹽鐵論』²⁾을 검토하는 일이 매우 유효한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鹽鐵論』에 기록된 鹽鐵論爭은 中華思想의 理論的 基礎에 대한 풍부한 資料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武帝死後의 對外政策의 方向을 결정지은 것으로 보이는 이 鹽鐵論爭은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思想의 背景이 형성되는 思想史的 過程의 전형적인 한 斷面을 보여주고 있다. 『鹽鐵論』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先學들의 주된 관심은 『鹽鐵論』에 기술되어 있는 西漢中期的 經濟政策 특히 鹽鐵酒의 專賣政策과 均輸 및 平準策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鹽鐵論』은 經濟史뿐만 아니라 漢代 政治史와 外交史(혹은 對外關係史)의 연구를 위해서도 훌륭한 資料로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西漢中期的 鹽鐵政策은 단순한 經濟政策의 일환으로 입안·시행된 것이 아니라 國內政治와 對外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鹽鐵政策에 대한 政府當局者(=大夫側)와 反對論者(=文學側)의 상반된 견해 역시 주로 政治 및 外交 軍事의 측면에서 개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鹽鐵政策을 立案하게 된 원

2) 本稿에서는 世界書局印行의 增補 中國思想名著 第四冊『鹽鐵論』(淸의 張敦仁 考證 并收)을 底本으로 하되, 世界書局印行 中國思想名著 二編 第五冊『鹽鐵論校注札記』(王利器校注·王佩靜札記)를 참조·교정하였다.

3) 武帝時代의 鹽鐵政策이나 昭帝時代의 鹽鐵論爭에는 民間經濟 및 國家財政·國內政治·外交軍事 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

조적 동기와 鹽鐵論爭의 發端이 對外問題 (특히 匈奴問題)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鹽鐵論』에 기록된 對外問題에 관한 論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는 일은 既往의 『鹽鐵論』研究를 보완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論文이 목적하는 바는 以上의 『鹽鐵論』研究를 보완 혹은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鹽鐵論』이나 鹽鐵政策 혹은 鹽鐵論爭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설명이나 기존연구의 소개 등은 생략하고 오직 對外問題에 대한 論爭을 분석하여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의 基礎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³⁾

2. 『鹽鐵論』에 보이는 德化論과 征伐論

昭帝 始元六年 (BC. 81)에 있었던 鹽鐵論爭은 武帝時代가 整理되는 劃期的 事件의 하나였다. 鹽鐵論爭을 일관하는 政府當局者側(大夫側)의 鹽鐵政策 擁護論과 賢良·文學側⁴⁾의 鹽鐵政策 撤廢論은 곧 武帝時代의 繼承과 斷絶을 각각 의미하였다. 鹽鐵政策은 武帝時代의 性格을 결정지은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鹽鐵論』의 「鹽鐵」은 武帝時代의 象徴이었다.

武帝時代의 鹽鐵政策은 단순한 經濟政策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財政 및 政治·外交·軍事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당시의 國家의 性格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大夫側의 鹽鐵政策 擁護論과 文

로 本論에서 사용되는 '鹽鐵政策' 혹은 '鹽鐵論爭'의 概念에는 經濟的 의미뿐만 아니라 政治·外交의 意味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鹽鐵論爭의 政治史的 意味에 대해서는 閔斗基, 「『鹽鐵論』研究—그 背景과 思想에 對한 若干의 考察—」(『歷史學報』 10, 11, 1958)과 西嶋定生, 「武帝之死—『鹽鐵論』의 政治的背景—」(『古代史講座』 11, 1965) 등이 있으나, 鹽鐵論上的 對外問題에 대한 研究는 필자의 寡聞 탓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4) 앞으로는 御史大夫 御史 丞相史 등 政府當局의 鹽鐵政策 擁護論者側을 일괄하여 '大夫側'이라 하고, 賢良·文學 등 撤廢論者들을 '文學側'이라 略稱할 것이다.

學側의 撤廢論이 모두 濟經 및 政治・外交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그 論理的 根據가 제시되고 있음으로 보아 알 수 있다.

文學側이 鹽鐵酒의 專賣와 均輸・平準策 등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그 조속한 撤廢를 요구하였을 때 大夫側은 國家權力이 民間의 經濟秩序에 직접 개입하여 鹽鐵酒의 生産과 流通을 조절 혹은 통제함으로써 生活必須品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物價를 안정시키는 한편 大商富豪의 전횡으로부터 細民(小農民)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豐凶調節의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요컨대 民의 經濟的 福利는 公權力에 의해 物資의 生産과 流通過程이 직접 장악 통제됨으로써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論理의 當爲性은 다음과 같은 大夫側의 주장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家人有寶器，尚函匣而藏之，況人主之山海乎。(5, 禁耕)

② 山海之利，廣澤之畜，天地之藏也，皆宜屬少府，陛下不私，以屬大司農，以佐助百姓。(6, 復古)

요약컨대, 山海의 利는 君主의 寶器와 같은 것이므로, 山海의 資源을 所有하고 開發할 수 있는 權利는 皇室의 財産을 관리하는 少府에 歸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大夫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있어 國家財政을 담당하는 大司農이 山海의 資源을 관장하고 있음은 皇帝가 百姓의 편의를 위하여 山海의 利를 私有하지 않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論理를 政治的 次元으로까지 연장한다면, 皇帝가 山海의 利를 통제함으로써 皇帝權力의 강화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皇帝는 자신의 所有物인 山海의 利를 독점하고 皇帝權力과 대립하는 다른 政治的 集團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함으로써 皇帝에 의한 一元的인 人民支配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大夫는

夫權利之處，必在深山窮澤之中，非豪民不能通其利，…今罷去之，則豪民擅其用

5) 漢代 國家財政과 帝室財政의 二重 構造에 대해서는 好並隆司「前漢帝國の二重構造と時代規定」(『歷史學研究』375, 1971. 8), pp. 2~6 參照要望.

而專其利。(5, 禁耕)

라 하여 權利의 所在가 山海의 利에 있음을 갈파하면서, 豪族에 의한 權利의 分占을 경계하였다. 또한 大夫는

異時鹽鐵未罷，布衣有胸臆，人君有吳王，皆鹽鐵初議也，吳王專山澤之饒，薄賦其民，賑贍窮乏，以成私威，私威積以逆節之心作，…今放民於權利，罷鹽鐵以資暴彊，遂其貪心，衆邪群聚，私門成黨，則強禦日以不制，而并兼之徒形成也。(5, 禁耕)

라 하여 鹽鐵政策의 立案目的이 豪族이나 諸侯勢力을 억제하는 데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武帝時代의 鹽鐵政策은 豪族의 「并兼之路」를 봉쇄하고 私的인 權力集團으로부터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여 細民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小農民層에 근거한 皇帝國家의 支配秩序를 확립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國有強禦而齊民消，…夫理國之道，除穢鋤豪，然後百姓均平，各安其守。(14, 輕重)

라는 御史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大夫側에 의해 파악된 治國의 요체는 強豪를 제거하여 細民을 보호하는 데 있었으니, 國家權力이 山海의 利를 독점함으로써 억제되어야 할 대상에는 豪族集團뿐만 아니라,

今山澤之財，均輸之藏，所以御輕野而役諸侯也。(2, 力耕)

라 한 바와 같이, 諸侯勢力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시의 諸侯 역시 皇帝權力의 강화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豪族集團과 성격을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武帝時代의 鹽鐵政策은 諸侯 및 豪族集團의 억제를 목적으로 입안 시행되었으며, 鹽鐵政策의 立案過程에 참여하고 그 시행을 주도하였던 大夫側은 皇帝權力에 의한 一元的・直接的인 人民支配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따라서 鹽鐵政策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시행된 것이었다기 보

다는 漢의 國家秩序를 확립한다는 政治的 目的을 성취하기 위한 經濟的方法이었다고 할 것이다. 鹽鐵政策에 내재한 이와같은 精神은 武帝時代精神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鹽鐵政策의 실질적 기능 역시 武帝時代에 기도된 皇帝權力의 強化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武帝時代가 「鹽鐵」로써 상징되었다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鹽鐵政策의 또다른 存在理由는 그 財政的 目的에서 찾아야 한다. 御史는

大夫各運籌策，建國用，籠天下鹽鐵諸利。(14, 輕重)

라 하여, 鹽鐵政策의 目的이 「鹽鐵諸利」을 독점하여 國用을 충당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大夫 역시

字小者用非，功巨者用大，是以縣官開園池，總山海，致利以助貢賦。(13, 園池)

라 하여 大功을 세우기 위해서는 山海의 利로써 國用을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 大夫가 말하는 「功」이란 구체적으로 武功을 의미하며, 「用」이란 邊費를 가리킨다. 따라서 鹽鐵政策은 對外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經濟的 方法이었다고 할 것이며, 鹽鐵政策의 이와같은 施行 目的은 『鹽鐵論』全篇을 통하여 大夫側에 의해 누누히 강조되었다.

① 邊用度不足，故興鹽鐵，設酒榷，置均輸，蓄貨長財，以佐助邊費。(1, 本議)

② 均輸之物，府府之財，非所以賈萬民而專奉兵師之用。(2, 力耕)

③ 鹽鐵之利，所以佐百姓之急，足軍旅之費。(7, 非執)

④ 建酒榷，以贍邊。(12, 憂邊)

⑤ 大夫雖罷鹽鐵者，非有私也，憂國家之用，邊境之費。(28, 國疾)

그러면 鹽鐵政策을 통해 확보된 財原을 기반으로 武帝時代에 추구된 對外的 課業은 무엇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大夫側의 武帝時代 讚揚論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先帝興義兵以誅暴強，東滅朝鮮，西定冉駝，南擒百越，北挫強胡。(43, 結和)

라 하여 武帝의 四夷征伐를 찬양하면서,

先帝絕三方之難，撫從方國，以爲蕃蔽，窮極郡國，以討匈奴，…是以主上欲掃除，
煩倉廩之費也。(42, 擊之)

라 하여, 그 功業의 成就를 위해서는 많은 邊費의 소요가 불가피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文學側은

今踰蒙恬之塞，立郡縣寇虜之地，地彌遠而民滋勞，朔方以西，長安以北，新郡之功
外城之費，不可勝計，非徒是也，司馬唐蒙鑿西南夷之塗，巴蜀弊於邛笮，橫海征南
夷，樓船戍東越，荊楚罷於甌貉，左將伐朝鮮，開臨屯，燕齊困於獫狁，張騫通殊遠，
納無用，府庫之藏流於外國，非特斗筲之費，造陽之役也。(16, 地廣)

라 하여 武帝時代에 四夷征伐와 邊郡開拓에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었음을 비난하였다. 이와같이 武帝의 功業에 대한 評價가 어떠하였든, 鹽鐵政策이 四夷征伐와 邊郡開拓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立案·施行된 것이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요컨대, 鹽鐵政策은 中國과 四夷를 포함한 世界에 대한 皇帝의 一元的이고 直接的인 支配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즉 鹽鐵政策의 첫번째 目的이 諸侯 및 豪族勢力을 억제하여 漢의 國家秩序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그 두번째 目的은 中國과 대립하는 周邊民族의 세력을 억제하여 帝國의인 世界秩序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鹽鐵政策의 첫번째 目的과 두번째 目的은 동일한 성격의 精神에 의해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武帝時代의 世界政策은 國內政策의 延長線上에서 발생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鹽鐵政策이 立案·施行된 經濟外的인 理由에 대하여 살펴져보았다. 그리하여 그것이 皇帝國家를 志向하는 武帝期의 時代精神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鹽鐵論爭은 왜 야기되었는가? 물론 鹽鐵論爭의 직접적 계기는 權力鬭爭의 政治의 背景에

6) 閔斗基 前揭論文에서는 鹽鐵論爭의 政治의 背景을 霍光과 上官桀의 權力鬭爭에서, 西嶋定生の 前揭論文에서는 內朝와 外朝의 對立에서 각각 찾고 있다.

서 찾을 수도 있지만,⁷⁾ 보다 근본적인 動因은 武帝末期 이후부터 표면화된 狀況의 복합적 변화로부터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本稿의 主題와 관련하여, 文學之士階層의 집진적 대두와 文吏계층의 퇴진으로 인한 官僚機構의 變化, 儒法의 균형이 깨어지는 思想史의 變化, 豪族勢力에 의해 民間秩序가 주도되는 社會的 變動, 戰爭의 終熄을 강요하는 國際關係의 變化 등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狀況의 變化의 諸樣狀은 武帝死後의 漢人들에게 武帝時代의 繼承과 斷絶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으니, 당시의 漢人들이 경험한 強迫觀念은 鹽鐵論爭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皇帝權力을 대변하고 法家的 文吏出身의 官僚階層을 대표한 大夫側과 豪族集團의 利益을 옹호하고 儒家的 文學之士階層을 대표한 文學側의 對立은 여러 爭點 가운데서도 특히 對外問題에 이르러 첨예화하였다. 對外問題에 대한 大夫側의 시종일관된 주장은 武帝時代의 目的과 方法을 그대로 繼承하자는 것이었다. 大夫側은

先帝計外國之利，料胡越之兵，兵敵弱而易制，用力少而功大，故因勢變以主四夷，地濱山海以屬長城，北略河外，開路匈奴之鄉，功未卒，…有司思師望之計，遂先帝之業，志在絕胡貉，擒單于，故未遑扣扇之義，而錄拘儒之論。（6，復古）

라 하여, 그들의 과업이 「未服」 혹은 「未臣」한 匈奴를 臣服케 하여 「先帝」 (=武帝)의 功業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들은 武帝時代의 鹽鐵政策을 철폐하는 것은 마치 “終日 짐승을 쫓다가 놓아주는 것과 같다”(42, 擊之)하고 혹은 “한응름의 흙을 붓지 못하여 산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46, 西域)고도 하여, 武帝時代를 계승하려는 그들의 철저한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大夫側이 지향하는 對外政策의 目標은 皇帝에 의한 一元的 世界支配였으며, 그 方法은 武力에 의한 周邊民族의 征服과 立郡(=邊郡設置)에 의한 領土擴張이었다. 그들은 秦의 帝業

7) ①(大夫曰) 秦既并天下，南絕沛水，并滅朝鮮，南取陸梁，北卻胡狄，西略氐羌，立帝號，朝四夷，舟車所通，足跡所及，靡不畢至。（44，誅秦）② 秦任商君，國以富彊，其後卒并六國遂成帝業。（7，非執）

을 높이 평가하면서,⁷⁾

高皇帝仗劍定九州，今以九州而不行於匈奴，閭里常民，常有桑散，況萬里之主與小國之匈奴乎，夫以天下之力勳何不權，以天下之民何不服，今有帝名而威不信長城，反路遺而尚踞敖，此五帝所不忍，三王所畢怒也。(43, 結和)

라 하여, 皇帝의 稱號와 부합치 않는 現實狀況(즉 和親)의 극복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大夫는 또한

先帝親其(=匈奴)可以武折而不可以德懷。(43, 結和)

라 하여 匈奴問題는 武力에 의한 方法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文學側은 秦의 「帝業」을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⁸⁾ 漢과 匈奴의 현실적 관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즉 文學側은

夫兩主好合，內外交通，天下安寧，世世無患。(43, 結和)

이라 하여, 「內外」의 「兩主」 즉 漢帝와 匈奴單于가 天下를 共有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의 지속적 발전을 희망하였다. 漢帝와 單于가 「好合」한다 함은 곧 兩國이 漢初에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는 和親을 가리킨다. 文學側은

① 去武行文，廢力尙德，罷關梁，除障塞，以仁義導之，則北垂無寇虜之憂，中國無干伐之事矣。(47, 世務)

② 往者通關梁，交有無，自單于以下，皆親漢內附，往來長城之下，其後王恢誤謀馬邑，匈奴絕和親，攻當路塞。(48, 和親)

③ 往者匈奴結和親，諸夷納貢，即君臣外內相信，無胡越之患。(43, 結和)

이라 하여, 匈奴問題의 근본적 해결은 武力을 버리고 文德에 의존함으로써

8) ① (大夫) 知其爲秦開帝業，不知其爲秦致亡道也。(7, 非軼) ② 秦…欲達瀛海，而失其州縣。(53, 論鄴)

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경우 文學의 文德은 和親으로 實現되며 和親은 關梁과 障塞의 철폐, 關市의 開設 등으로 구체화된다. 文學側은 戰爭을 반대하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으며,⁹⁾ 物理的方法으로 匈奴問題를 해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으므로,¹⁰⁾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和親의 부활이었던 것이다.

요약컨대, 大夫側의 理想이 秦代에 실현된 世界帝國을 모형으로 하여 武帝時代에 시도된 皇帝의 一元的 世界支配를 物理的 方法으로 완성하는 것이었음에 반해, 文學側의 理想은 漢國家의 理念과 괴리된 現實의 現況을 인정함으로써 武帝時代를 통해 파괴된 中國의 平和와 安定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즉 大夫側의 世界政策은 武帝時代에 추구된 理想과 方法을 계승하여 秦代의 世界를 再現하는 것이었으며, 文學側의 對外政策은 武帝時代의 그것을 철저하게 포기하여 高祖時代 혹은 文景帝時代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武帝時代의 繼承과 斷絶을 결정하게 될 大夫側과 文學側의 상반된 입장은 아마도 武帝時代에 기여한 兩者의 상위한 역할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公孫弘 등 「賢良方正文學之士」들이 武帝時代에 官僚로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政治에 별다른 效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大夫側의 비판에 답하여 文學側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當公孫弘之時，人主方設謀垂意於四夷，故權譎之謀進，…奮擊之士由此興，其後干戈不休，軍旅相望，甲士糜弊，縣官用不足，故設險與利之臣起，穰溪熊羆之士隱，涇淮造渠以通漕運，東郭咸陽孔僅建鹽鐵，策諸利，…百姓不堪抗弊而從法，故憎急之臣進，而見知廢格之法起，杜周咸宜之屬，以峻文決理貴，而王溫舒之徒以鷹隼擊殺

9) ① 偃兵休士，厚帑結和，親修文德。(42, 擊之) ② 夫文猶可長用，而武難久行也。(49, 繇役) ③ 武力不如文德。(50, 險固)

10) ① 今匈奴牧於無窮之澤，東西南北，不可窮極，雖輕車利馬不能得也，況負重贏兵以求之乎，其勢不相及也。(46, 西域)

② 皆言其易而實難。(52, 論功)

顯，其欲據仁義以道事君者寡，偷合取容者衆，獨以一公孫弘如之何。(10, 刺復)

즉 文學側에 의하면, 武帝時代에는 대외적 팽창정책으로 인하여 咸陽·孔僅·杜周·咸宣·王溫舒 등 法家主義의 文吏출신의 官僚들이 크게 진출하였음에 반하여 儒家主義의 文學之士 출신으로 高級官僚가 된 자는 公孫弘一人에 지나지 않았다.¹¹⁾ 여기서 우리는 文吏階層의 法家主義의 성격과 文學之士階層의 儒家主義의 성격이 對外政策의 결정과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武帝時代의 팽창정책에 대한 大夫側의 상반된 입장과 對外問題에 대한 兩側의 대립적 견해는 본질적으로 兩側의 입장을 규정하는 思想的 背景의 異質性에 기인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따라서 大夫側과 文學側의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思想的 背景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思想的 背景에 대한 이해는 鹽鐵論爭의 思想史의 背景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의 基礎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漢代의 中國의 世界秩序는 鹽鐵論爭과 같은 상반된 理論의 대립과 종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鹽鐵論爭의 상반된 理論은 兩側의 思想的 背景 가운데서 배태되었기 때문이다.

11) 武帝時代의 文學之士는 高級官僚群에 편입되지는 못하였으나 內朝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皇帝權力의 中核을 형성하였다. 특히 東方朔·嚴助·主父偃 등 文學之士들이 武帝時代의 팽창정책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武帝時代와 그 이전에 활약한 文學之士들의 思想的 背景에는 法家的 要素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武帝死後의 文學之士와 同一視되기는 어렵다. 예컨대 文帝와 景帝 및 武帝時代의 대표적 文學之士였던 賈誼·晁錯·主父偃 등은 모두 '純儒'라기보다 法家的 傾向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었다. 『鹽鐵論』에서 文學側은 賈誼·晁錯·公孫弘·董仲舒·倪寬·東方朔·主父偃 등을 稱譽하고 있지만, '雜儒'와 '純儒'라는 관점에서 『鹽鐵論』의 賢良文學과 그 이전의 文學之士의 思想的 傾向은 分別되어야 하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兩者의 政治的 機能 역시 구별되어야 한다.

3. 德化論과 征伐論의 論理的 根據

鹽鐵論의 大夫側이 法家的 立場을 견지하고 文學側의 주장이 儒家思想에 근거하고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만, 兩者의 論理로부터 異質의 要素가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文學側은 大夫側으로부터 孔子를 祖述하고 「先王之術」에 능통한 「儒者」로 지칭되었으나¹²⁾ 論爭의 과정에서 文學側은 墨家의 이론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大夫側으로부터 「儒墨」이라 지칭되기도 하였다.¹³⁾ 또한 文學側은 자신의 論理에 설득력을 가하기 위하여 老子를 인용하기도 하였으며,¹⁴⁾ 혹은 法家的理論의 일부를 수용하기도 하였다.¹⁵⁾ 한편 大夫側 역시 儒家의 經典에 깊은 素養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¹⁶⁾ 儒家思想의 일부를 自家類로

12) ① 文學祖述仲尼. (11, 論儒) ② 所謂文學高第者, 智略能明先王之術. (20, 相刺)

13) 大夫側은 “今文學言治則稱堯舜, 道行則言孔墨” (20, 相刺)이라 하여 文學이 孔子와 墨子를 함께 숭앙하고 있다 하였고, 文學集團을 가리켜 “山東儒墨” (8, 晁錯) “齊魯儒墨縉紳之徒” (19, 褒賢) 혹은 “晚世之儒墨” (53, 論鄒)이라 하였다. 또한 文學 역시 秦政을 비난하면서 “昔秦……廢古術, 隳舊禮, 專任刑法, 而儒墨既喪焉” (24, 論誅)라 하였고 賢良 역시 “孔子栖栖疾固也, 墨子遑遑, 閱世也” (29, 散不足)라 하여 孔墨을 並稱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文學이 「儒墨」으로 지칭된 까닭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文學側의 주장이 墨家的 理論에 자주 의거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福井野雅, 「前漢における墨家の再生」(『東方學』 39, 1970) 參照要望.

14) 『鹽鐵論』에는 老子의 『道德經』이 3回 인용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文學側에 의해 借用되었다.

15) 文學側은 『鹽鐵論』 전편을 통해 秦의 法家的 統治方法을 격렬하게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法令의 存在價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賢良은 “古者篤敎以導民, 明辟以正刑” (34, 後刑)이라 하고 文學은 “法勢者, 治之具也” (55, 刑德) “令者敎也, 所以導民人, 法者刑罰也, 所以禁強暴也, 二者治亂之具, 存亡之效也” (58, 詔聖)라 하여, 刑法의 현실적 存在意味를 인정하고 있다.

16) 『鹽鐵論』에는 모두 34회에 걸쳐 『論語』의 문장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중 大夫側에서 9回 인용하였다. 또한 『春秋』(혹은 그 諸傳)의 경우 總 31回중 大夫

소화하여 수용하였으며 仁義와 道德의 궁극적 價値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기도 하였다.¹⁷⁾

그러나 大夫側과 文學側에 수용된 異質的 要素들이 그들의 기본적 입장과 思想的 背景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大夫側은 의연히 法家思想을 견지하였으며, 文學側의 論理는 시종일관 儒家思想에 근거하였다. 그들에게 수용된 異質的 要素들은 그들의 論理를 강화하는 데 이용된 지엽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예컨대 文學側이 墨家の 節用勤儉說을 援用한 까닭은, 武帝時代의 基本 精神과 大夫側이 주장하는 對外政策의 本質이 「奢侈」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墨家の 節用論은 본질적으로 儒家의 文化主義的 禮論과 대립한다. 따라서 文學側의 節用論은 오히려 大夫側으로부터 「先王之制」와 모순된다고 비판되었다.¹⁹⁾ 또한 文學側은 墨家로부터 節用論만 借用하고 兼愛說은 적극적으로 배척하였다. 兼愛說은 그들이 주장하는 「仁義의 差等的 배품」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文學側의 「因循 不作」「敦厚之樸」「垂拱無爲」등 道家의 概念을 援用하여 강조한 것도 大夫側의 煩劇한 治術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武帝時代와 大夫側主張의 本質을 「煩」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²⁰⁾

이와같이 文學側과 大夫側이 借用한 異質的 要素들은 兩者의 論理에 설득력을 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그 기본적 입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

側에서 12回 인용하였으며, 『詩』는 總 28回중 8回, 『易』은 總 5回중 2회가 大夫側에 의해 인용되었다.

17) ① 聖人異塗同歸, 鄒子之作, 變化之術, 亦歸於仁義. (11, 論儒) ② 先帝征不義, 攘無德, …聖王累年仁義之積也. (52, 論功)

18) ① (文學曰) 理民之道, 在於節用尚本. (2, 力耕) ② (賢良曰) 寡功節用, 則民自富. (36, 水旱)

19) (大夫曰) 古者宮室有度, 輿服以庸, 采楊茅茨, 非先王之制也. 君子節奢刺儉, 儉則固. (3, 通有)

20) 大夫는 “夫舉規矩而知宜, 吹律而知變, 上也, 因循而不作, 以俟其人, 次也, 是以曹丞相日飲醇酒, 倪大夫閉口不言, 故治大者不可以煩, 煩則亂.” (10, 刺復) 이라 하여, 黃老術者로 유명한 曹參과 倪寬의 治術을 칭예하면서 煩劇한 政治를 반대하였다.

치지 못하였다. 물론 兩側이 援用한 다양한 論據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의 主張이 儒家思想과 法家思想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은 의심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兩者의 論理的 根據를 찾으려는 本章의 논의는 당연히 儒家와 法家思想의 本質의 性格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儒家와 法家思想의 本質적 성격은 「仁義」와 「刑法」이라는 핵심적 개념 가운데에 함축되어 있다. 실제로 文學側과 大夫側은 그들 주장의 출발점을 仁義와 刑法概念에 두고 있음을 鹽鐵論爭 과정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仁義와 刑法概念의 屬性으로부터 論議의 端緒를 찾아서 兩概念으로부터 兩側의 구체적 論理가 導出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① 仁과 法

굳이 孟子의 性善說과 荀子 및 韓非의 性惡說을 거론치 않더라도 儒家의 仁이 人性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서 비롯되고 法家の 法이 人性에 대한 不信에 근거한 것임은 再論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人性이 善하다면 굳이 法和 같은 結果論의 強制가 필요치 않을 것이며, 人性이 惡하다면 仁和 같은 心情的 結合만으로써는 사회질서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原始儒家와 法家の 論理的 바탕을 이루는 人性論은 文學과 大夫의 鹽鐵論爭에서도 兩側 논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大夫側은 文學側의 復古의 歷史意識을 비난하면서,

虞憂以文，殷周以武，異時各有所施，今欲以郭朴之時，治抗弊之民，是猶遷延而拯溺，搦糞而救火也，…俗非唐虞之時而世非許由之民，而欲廢法以治，是猶不用隱括斧斤欲撓曲直枉也，故爲治者不待自善之民，爲輸者不待自曲之木。（59，大論）

이라 하여, 今世의 民은 “許由之民”이 아니라 “抗弊之民”이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文學은

文王興而民好善，幽厲興而民好暴，非性之殊，風俗然也，故商周之所以昌，桀紂

之所以亡也，湯武非得伯夷之民以治，桀紂非得瞽瞍之民以亂也，故治亂不在於民，…殘材木以成室屋者，非良匠也，殘賊民人而欲治者，非良吏也，故公輸子因木之宜，聖人不費民之性，是以斧斤簡用，刑罰不任，政立而化成。(59, 大論)

이라 하여, 治亂의 原因은 人性의 善惡에 있는 것이 아니라, 治術의 善惡에 있다고 하였다. 文學에 의하면 治世의 民과 亂世의 民은 그 本性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治亂의 궁극적 책임은 爲政者와 그 治術에 있다. 그러나 大夫에 의하면, 治世와 亂世의 차이는 人性의 變質에 기인하므로, 國家의 強制力을 동원하여 民性을 교정하는 것이 治術의 요체라는 것이다. 文學側의 仁義論과 大夫側의 刑法論은 바로 이와같이 相反된 人性論에 근거하였다. 물론 文學側의 人性論이 모든 사람이 善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아니며, 大夫側의 人性論이 萬人의 악함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性善說이나 性惡說의 善惡은 人性의 잠재적 發端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性惡說은 惡人의 出現可能性을 인정하며, 性善說 역시 善人의 存在를 인정한다. 단지 前者의 관심이 人間의 善한 자질을 키우는 방법에 모아져 있는데 반해 後者의 관심은 人間의 惡한 자질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儒家的 治術과 法家的 治術의 相違性은 바로 이와같은 兩者의 상반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湯武經禮義，明好惡，以道其民，刑罰未有所加，而民自行義，殷周所以治也。(58 詔聖)

라는 文學의 주장에 의하면, 仁義로써 人民을 引導하고 道德으로 人民을 敎化한다면 人民은 刑法을 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義롭게 된다. 人性의 본질이 善하므로 그 자질을 잘 키워주는 일이 爲政者의 基本적 責務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惡人의 存在와 影響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면,

古之君子善善而惡惡，人君不畜惡民，農夫不畜無用之苗，無用之苗，苗之害也，

無用之民，民之賊也，鉏一害而衆苗成，刑一惡而萬民悅，…故刑所以正民，鉏所以別苗也。(34, 後刑)

라는 大夫의 주장과 같이, 마치 農夫가 “無用之苗”를 제거하여 衆苗를 보호하듯이, 國家의 強制力(刑)으로 “無用之民(惡民)”을 제거하여 萬民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물론 前述한 바와 같이, 文學側은 法の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大夫側은 仁義의 이상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文學側이 民性の 善惡을 治術의 책임으로 돌리고 大夫側이 治亂의 원인을 民性の 善惡에서 찾는 한, 仁義와 刑法의 先後와 輕重에 대한 兩者의 견해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文學側은

古者明其仁義之誓，使民不踰，不教而殺，是虐民也，與其刑不可踰，不若義之不可踰也，聞禮義行而刑罰中，未聞刑罰行而孝悌興也。(58, 詔聖)

라 하여, 刑法의 적용에 앞서 仁義로써 人民을 敎導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法令이 設備되어도 不用하게 될 것”(59, 大論)을 희망하였다. 이에 반해 大夫側은

禮讓不足禁邪，而刑法可以止暴。(58, 詔聖)

이라 하여 仁義의 非現實性을 강조하면서,

今刑法設備而民猶犯之，況無法乎，其亂必也。(55, 刑德)

라 하여 刑法이 존재해야 할 必然性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人性的 본질에 대한 文學側과 大夫側의 상반된 견해는 마침내 仁義와 刑法의 效用論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다. 文學側과 大夫側의 人性論과 禮法論은 兩側이 제시할 世界政策의 論理的根據로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文學側의 仁義論을 對外問題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非戰論으로 귀결될 것이며,

大夫側의 刑法論을 확대한다면 主戰論으로 발전될 것이다. 왜냐하면 戰爭은 刑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²¹⁾

그리하여 大夫側은

聖主循性而化，有不從者，亦將舉兵而征之，是以…自古明王不能無征伐而服不義不能無城壘而禦強暴也。(49, 繇役)

라 하여, 征伐이 刑法과 같이 不義者와 不從者를 징치하기 위한 不可缺少한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獨의의 主戰論을 개진하였다.²²⁾ 이에 반해 文學側은

正近者不以威，來遠者不以武，德義修而任賢良也。(47, 世務)

라 하여, 兵威와 征伐에 의한 정치에 앞서 仁義와 道德으로 四夷를 회유할 것을 주장하면서 獨특한 反戰論理를 전개하였다.²³⁾ 征伐이 刑法의 일종이라는 전제가 설정된다면, 大夫側과 文學側에 있어서 主戰論과 非戰論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요컨대 大夫側의 對外的 征伐論은 對內的 刑法論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文學側의 對外的 德化論은 對內的 仁政論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論理를 逆으로 다시 소급한다면, 大夫側과 文學側의 主戰論과 非戰論 역시 그들의 상반된 人性論에서 출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兩側의 刑法論과 仁義論이 民性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부터 출발하였듯이, 刑法論과 仁義論으로부터 발전된 主戰論(征伐論)과 非戰論(德化論) 역시 民族의 本性에 대한 상반된 견해(즉 華夷觀)로부터

21) 『漢書』 刑法志에서는 “聖人因王誅而制五禮，因天討而作五刑，大刑用甲兵，其次用斧鉞，中刑用刀鋸，其次用鑕鑿”이라 하여 甲兵(戰爭)을 刑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22) ① 今不征伐則暴害不息。(38, 備胡) ② 其可以武折而不可以德懷。(43, 結和) ③ 故有交事，必有武事。(47, 世務) ④ 內據金城，外任利兵，是以威行諸夏，強服敵國。(51, 論勇)

23) ① 善克者不戰，善戰者不帥，善師者不陣，修之於廟堂，而折衝還師，王者行仁政，無敵於天下。(1, 本議) ② 古者貴以德而賤用兵。(〃) ③ 兵者凶器也，甲堅兵利，爲天下殃。(54, 論藺)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大夫側은 『鹽鐵論』의 여러 곳에서 異民族의 本性에 대한 깊은 혐오와 경멸 그리고 不信感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匈奴와의 和親을 반대하면서,

① 春秋不與夷狄之執中國，爲其無信也，匈奴貪狼，因時而動，乘可而發，馳舉電至，而欲以誠信之心，金帛之寶，而信無義之詐，是猶親蹠蹠而扶猛虎也，…今匈奴挾無信之心，懷不測之詐，見利如前，乘便而起，潛進市側，以襲無備，是猶措重寶於道路而莫之守也。(47, 世務)

② 自春秋諸夏之君會聚相結，三會之後，乘離相疑，伐戰不止，六國從親，冠帶相接，然未嘗有堅約，況禽獸之國乎，…匈奴數和親，而常先犯約，貪侵盜驅，長詐謀之國也，反復無信，百約百叛，若朱象之不移，商均之不化也，而欲信其用兵之備，親之以德，亦難矣。(48, 和親)

라 하여, 匈奴는 信賴할 수 없는 “禽獸之國”이므로 德化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和親이란 「和親之約」에 의해 성립·유지되며, 「約」은 相互信賴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武威와 같은 物理的 強制力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異民族의 本性을 근본적으로 不信하는 大夫側의 입장에서 和親이란 방법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大夫側이 匈奴를 蹠蹠와 같은 惡人에 비유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萬人을 위해서는 “惡人(無用之人)”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들의 刑法論을 살펴 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刑法論이 對外的 征伐論으로까지 발전하는 論理的 過程을 다음과 같은 大夫의 주장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① 今明天子在上，匈奴公爲寇，侵擾邊境，是仁義犯而黎藿不採，…故不仁者，仁之賊也，是以縣官厲武以討不義，設械以備不仁。(38, 備胡)

② 夫漢之有匈奴，譬若木以有蠹，如人有疾，不治則癰以深，故謀臣以爲擊奪以困極之，諸生言以德懷之，此有其語而不可行也。(47, 世務)

여기서 大夫側은 匈奴를 “不仁者”로 규정하고, 이를 苗中の 黎藿이나 나무의 蠹虫 혹은 사람 몸의 疾病 등으로 비유하였다. 논밭에서 잡초를 제거

하고 나무에서 벌레를 잡듯이, 혹은 人體에서 疾病을 퇴치해야 하듯이, 天下의 仁者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匈奴와 같은 不仁者를 擊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惡民을 징치하여 萬民을 보호해야 한다는 刑法論理와 일치한다. 우리가 大夫側의 征伐論이 刑法論에서, 궁극적으로는 人性論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文學側은 그들의 人性論과 부합되는 독특한 華夷論을 개진함으로써 對外的 非戰論 혹은 德化論의 論理的 根據를 확보하였다. 즉 文學側은 治亂의 책임이 人性의 善惡에 있는 것이 아니라 治術의 善惡에 있다는 논리를 對外問題에까지 확대적용하였던 것이다. 文學側은

普天之下，惟人面之倫，莫不引領而歸其義，…既以義取之，以德守之。(49, 繇役)

라 하여, 中外를 포함한 모든 人間의 本性에 대해 깊은 信賴를 보이면서,

未聞善往而有惡來者，故君子敬而不失，與人恭而有禮，四海之內皆爲兄弟也，故內省不疚，夫何憂何懼，…范蠡出於越，由余長於胡，皆爲霸王賢佐，故政有不從之教，而世無不化之民，…故公劉處戎狄，戎狄化之，大王去邠，闡民隨之，周公修德，而越裳氏來，其從善如影響，爲政務以德親近，何憂於彼之不改。(48, 和親)

라 하여 華夷의 本性을 기본적으로 同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由余와 范蠡 등 非中國人의 탁월한 능력을 예로 들어 “四海之內가 모두 兄弟”라고 단언하였고, 公劉·古公亶父·周公 등의 仁政을 예로 들어 異民族의 德化可能性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華夷의 本性을 同質의인 것으로 이해하는 文學側의 주장은 그들의 人性論과 완전히 일치한다. “不從의 政教는 있어도 不化의 世民은 없다”함은 治亂의 責任이 民性의 善惡에 있는 것이 아니라 治術의 善惡에 있다는 그들의 人性論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또한 그들의 「善往善來」說은 異民族에 대한 信賴를 보여 주는 것이다. 文學側은 “匈奴人이 비록 文化(=禮)의으로는 저열하나 믿음(=信)에는 돈독하다”(52, 論功)고 하고, 혹은 “匈奴와 和親을 맺어 內外가 서로 信賴하였다”(43, 結和)고도 하였다. 大夫側의 物理的 解決策에 반대하

여 文學側이 和親을 유일한 解決方法으로 제의하게 된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信賴感에 근거한 것이다.²⁴⁾

우리는 여기서 文學側과 大夫側의 상반된 華夷觀을 정리할 수 있다. 大夫側의 中國은 天下의 “仁者”이며 四夷는 天下의 “不仁者”다. 그들은 中國의 對匈奴戰을 가리켜 “以義伐不義”(52, 論功)라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夷狄(특히 匈奴)은 信義를 기대할 수 없는 “禽獸之國”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征伐(=刑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大夫側의 華夷觀은 철저한 種族的 差等意識의 所産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文學側에 있어 四夷는 中國과 本質적으로 동일한 天下(=四海之內)의 兄弟일 뿐이다. 그들은 華夷의 갈등이 四夷의 劣惡한 本性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中國이 四夷를 대하는 方法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文學側의 華夷觀에는 種族的 差等意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文學側이 華夷를 同等한 價値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華夷觀에는 種族的 差等意識이 배제된 대신 四夷에 대한 文化的 優越意識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仁義 혹은 禮儀의 有無 혹은 多少로써 華夷를 가름하였다.²⁵⁾ 이와같은 文學側의 種族的 同等意識과 文化的 差等意識이 결합하여 그들의 對外的 德化論을 다음과 같이 具體化시켜 놓았다.

王者崇禮施德，上仁義而賤怪力，…令萬方絕國之君奉贊獻者，懷天子之盛德，而欲觀中國之禮儀，故設明堂辟雍以示之，揚干戚，昭雅頌以風之，…昔周公處謙以卑土，執禮以治天下，辭越裳之贊，見恭讓之禮，既與入文王之廟，是見大孝之禮也，目

24) 文學側의 和親論에 대하여, 大夫側은 “漢興以來，修好，結和親所聘遺單于者甚厚，然不紀重質厚賂以故，改節而暴害滋甚，先帝觀其可以武折而不可以德懷…匈奴以虛名市漢而實不從，數爲蠻貊所給，不痛之何故也”(43, 結和)라 하여 和親을 적극 반대하였는데, 그 까닭은 물론 匈奴에 대한 不信에 기인하였다.

25) 原始儒家 특히 孟子的 華夷觀 역시 文化的 差等意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楚人 許行과 그 弟子 陳相에 대한 孟子의 評價 가운데서 잘 표현되어 있다(滕文公).拙稿, 「中國概念을 통해서 본 古代中國人의 世界觀」(『全海宗博士 華甲紀念論叢』1979), pp. 9~11.

諸威儀干戚之容，耳聽清歌雅頌之聲，心充至德，欣然以歸，此四夷所以恭義內附。
(37, 崇禮)

즉 中國의 “威儀干戚” “清歌雅頌” 등 고급한 禮儀(즉 中國의 傳統的 諸文化樣式)를 보임으로써 文化的으로 저급한 四夷로 하여금 스스로 心服하여 歸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文學側이 제의한 對外的 德化論의 本質은 中國文化에 對한 높은 自矜과 四夷의 德化(즉 中國文化에의 同化) 可能性에 對한 確고한 믿음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大夫側은

炫耀奇怪，所以陳四夷，非爲民也，…故列羽旄，陳戎馬，以示威武，奇蟲珍怪，所以示懷廣遠明德，遠國莫不至也。(37, 崇禮)

라 하여, 四夷에게 中國의 강력한 武威와 珍怪한 外國의 奇物을 보임으로써, 四夷로 하여금 中國의 物理的 힘에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四夷가 秦에 服屬한 것은 “秦의 德에 心服한 것이 아니라 그 威勢를 두려워했기 때문”(44, 誅秦)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四夷의 動物의 本性을 제압하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人間의 本性에 호소하는 文化的 方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상반된 文學側과 大夫側의 華夷觀을 이해하는 것은 兩側의 對外的 德化論과 征伐論의 論理的 根據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른바 中華主義의 政體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人性論으로부터 世界政策에 이르기까지 발전되는 論理的 過程은 中華主義의 儒敎의 王化思想과 華夷의 差別意識이 연결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② 義와 利

鹽鐵論爭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爭點의 하나였던 것은 義와 利의 다툼이었다. 文學側은 鹽鐵政策이 義를 버리고 利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으며, 大夫側은 國家政策이 國家와 民의 利益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응수하였다. 따라서 鹽鐵論爭의 본질은 兩側의 義利論을 통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利를 義의 反對概念으로 이해하는 論理는 이미 『孟子』로부터 비롯되었다. 孟子는 梁惠王에게

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梁惠王上)

라 하여 利보다는 仁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였으며, “利不利”의 논리로써 秦楚의 戰爭을 중지케 하려한 宋輕에게도 仁義로써 休戰을 설득하도록 충고하였다. (告子下) 그는 또한

鷄鳴而起，孳孳爲善者，舜之徒也，鷄鳴而起，孳孳爲利者，跖之徒也，欲知舜與跖之分無他，利與善之間也。(盡心上)

라 하여 利를 善의 反對概念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文學側의 義利論은 바로 이와같은 孟子的 反功利主義에 연유하였을 것이다. 孟子에 의하면 義는 “사람의 바른 길”이며 “남의 것을 取하지 않는 것”이다.²⁶⁾ 文學 역시 義란 “일의 올바름”이라 하였다.²⁷⁾ 따라서 義의 反對概念인 利는 남의 것을 빼앗는 올바르지 못한 길이라 하겠다. 文學이 鹽鐵政策을 비난한 까닭도 그것이 곧 남의 것을 빼앗는 不善한 行爲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文學側이

竊聞治人之道，防淫佚之道，廣道德之端，抑末利，而開仁義，毋示以利，然後教化可興，而風俗可移也，今郡國有鹽鐵酒權均輸，與民爭利，散敦厚之機，成貪鄙之化。(1. 本議)

라 하여, 鹽鐵政策의 본질을 “民과 더불어 利를 다투는 것”으로 규정하고,

26) ① (孟子曰) 仁，人之安宅也，義，人之正路也。(離婁上) ② (孟子曰) 殺一無罪，非仁也，非其而取之，非義也，居惡在，仁是也，路惡在，義是也，居仁由義，大人之事備矣。(盡心上)

27) (文學曰) 仁者，愛之效也，義者，事之宜也。(55, 刑德)

利로써 보다는 義로써 民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였다.

文學側이 말하는 利는 구체적으로 經濟的 財利를 의미하지만,²⁸⁾이 경우의 財利는 단순한 財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義 역시 貧寒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文學側은

孔子曰,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故天子不言多少, 諸侯不言利害, 大夫不言得喪, 畜仁義以風之, 廣德行以懷之. (1, 本義)

라 하여 孔子를 인용한 바와 같이, 文學의 義는 均等하고 安定된 富의 分配를 의미하며 文學의 利는 不均等하게 독점된 財富을 가리킨다.

한편 文學의 利는 政治的 權利를 의미하기도 한다. 文學은 굳이 經濟的 財利뿐만 아니라 政治的 權利 역시 義에 배치된다고 하였다.²⁹⁾ 文學側은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萬乘之國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弑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不蹙. (16, 地廣)

이라 하여 『孟子』의 一句(梁惠王上)를 인용하였는데, 孟子가 말하는 “征利”란 자신의 地位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權利를 쟁취하려는 것이며, 義란 자신의 分數에 만족하여 남의 權利를 탐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文學側의 義利論은 對內的 經濟 및 政治問題에만 국한되어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財利와 權利에 대한 文學側의 비난은 對外問題에 대한 論議의 단서에 지나지 않았다. 즉 文學側이 전개한 義利論의 궁극적 목적은 對外的 功利的 배척에 있었던 것이다. 그 한 예로써 文學과 大夫는

28) ① 古者貴德而賤利, 野義而輕財. (4, 鑄幣) ② 崇禮義, 退財利. (27, 利讓)
③ 文學桎梏於舊術, 有可桎梏於財利. (〃)

29) ① 古者大夫思其仁義以充其仁, 不爲權利以充其私也. (17, 貧富) ② 聞者士大夫務於權利, 怠於禮義. (29, 散不足)

① (文學曰) 商鞅…崇利而簡義, 高力而尚功. (7, 非鞅)

② (大夫曰) 商君…舉而有利, 勳而有功. (〃)

이라 하여 商鞅을 혹은 비난하고 혹은 칭송하였는데, 商鞅에 대한 양자의 평가는 상반되었으나, 功을 利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일치되었다. 여기서의 功이란 武功 즉 “斥境廣地”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文學은 秦帝의 功을 가리켜 “進取之利”라 하였고, 大夫는 武帝의 功을 가리켜 “外國之利” 혹은 “斥地之利”라 하였다.³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秦代나 武帝時代に 추진된 對外的 膨脹政策이 “斥境廣地”의 利를 目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文學은

① 蒙恬卻胡千里, 非無功也, …蒙恬以得千里亡秦社稷, …此…知利而不知害, 知進而不知退. (7, 非鞅)

② 秦…小海內而貪胡越之地, 使蒙恬擊胡, 取河南以爲新秦, 而亡其故秦. (44, 誅秦)

③ 蒙恬斥境可謂遠矣. (16, 地廣)

라 하여 秦의 功業을 貪利에 의한 “得地” “斥境”으로 이해하였으며, 大夫 역시

① 夫以小國燕趙, 尚猶卻寇虜以廣地, 今以漢國之大, 士民之力, 非特齊桓之衆, 燕趙之師也. (45, 伐功)

② 先帝推讓斥境斥奪廣饒之地, 建張掖以西. (46, 西域)

라 하여 武帝와 大夫側의 膨脹政策이 “廣地” “斥境”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하였다. 桓寬 역시 大夫側이 “辟地”의 利만을 추구하였다고 비난하였다(60, 雜論). 이와같이, 비록 大夫側이

聖主(=武帝)用心, 非務廣地以勞衆而已矣. (16, 地廣)

30) ① (文學曰) 秦南禽勁越, 北卻強胡, 竭中國以役四夷, …秦知進取之利, 而不知鴻門之難. (43, 結和) ② (大夫曰) 先帝計外國之利, 料胡越之兵, 兵敵弱而易制, 用力少而功大. (6, 復古) ③ (大夫曰) 聖主斥地, 非私其利. (43, 結和)

라고 변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武帝時代 膨脹政策의 본질은 “斥境廣地”의 利를 탐함에 있었던 것이다.³¹⁾

秦帝와 武帝의 四夷征伐이 皇帝의 德澤을 天下에 널리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斥境廣地”로써 中國을 廣大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근본적 動機는 利의 추구로부터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斥境廣地”함으로써 中國이 획득할 수 있는 利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大夫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內郡人衆, 水泉薦革不能相瞻, 地勢溫濕, 不宜牛馬, 民雖來而耕, 負擔而行, 勞罷而寡功, 是以百姓貧苦而衣食不足, …孝武皇帝平百越以爲園圃, 卻羌胡以爲苑囿, 是以珍怪異物充於後宮, 駒騶驪騮實於外廄, 匹夫莫不乘堅良, 而民間厭穢, 由此觀之, 邊郡之利亦饒矣. (15, 未通)

② 汝漢之金, 纖微之貢, 所以誘外國而釣胡羌之寶也, 夫中國一端之縑, 得匈奴累金之物, 而損敵國之用, 是以羸驢駝, 銜尾入塞, 騊駼騊馬, 盡爲我畜, 騊駼狐貉, 采麝文麗, 充於內府, 而璧玉珊瑚瑠璃, 咸爲國之寶, 是則外國之物內流, 而利不外泄也, 異物內流則國用饒, 利不外泄則民用給矣. (2, 力耕)

大夫가 말하는 “邊郡之利”란 “蠻貉之地遠方之物”(15, 未通), 즉 外國에서 생산되는 珍奇한 物件과 名馬·寶物 등을 가리킨다. 또한 內郡이란 中國을, 邊郡이란 四夷의 原居住地를 의미한다. 따라서 武帝와 大夫가 추진한 對外政策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는 四夷의 居住地를 침탈하여 中國의 領域을 확대하고 中國에서 부족한, 혹은 생산되지 않는 物資를 그곳으로부터 약탈하여 國用 혹은 民用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外國之利”에 대한 노골적인 貪欲이 大夫側이 계승하려 한 武帝時代 政策의 本質이었다. 對外征伐論의 理論의 背景은 “以義伐不義”의 刑法論에 있었지만 大

31) 굳이 文學과 大夫의 증언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史記』(SC)와 『漢書』(HS) 등에서 秦代와 武帝時代의 對外政策이 “廣地”를 目的한 것이었다는 漢人들의 주장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① 秦(始皇)…務欲廣地. (HS 27下之上; HS 64下) ② 秦…欲廣大. (HS 49) ③(主父偃)盛言朔方地肥饒…廣中國, 滅胡之本也. (SC 112) ④武帝…開地斥境. (HS 28上) 등.

夫側이 품고 있던 目的의 하나는 그들이 “匈奴貪狼，…見利如前” (47, 世務)이라고 경멸한 匈奴의 侵邊目的과 대동소이하였다. 大夫側의 征伐論이 文學側으로부터 비판되어야 할 또다른 까닭의 하나가 이와같은 不道德한 目的의 설정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利를 추구한 것이지 義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文學의 義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우리는 孟子의 義가 “남의 것을 取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文學이 大夫側의 對外政策을 비난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그것이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었는가. 그러나 公冶龍에게도 鹽鐵論爭 가운데서 文學側이 “斥境廣地” 그 자체의 不義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경우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文學側의 關心은 오히려 “斥境廣地”의 結果에 모아져 있었다. 대규모의 장기적 戰爭으로부터 결과된 中國의 疲弊(예컨대 國家財政의 파탄, 民間經濟의 붕괴, 國內政治의 不安 등) 그것이 文學의 不義였다. 이것은 일견하여, 利를 不義로 규정한 論理와 모순되는듯이 보인다. 그러나 原始儒家에 있어서나 鹽鐵論에 참여한 文學側에 있어서도, 利 그 자체가 不義였던 것은 아니다. 孔子가 富의 不均等한 分配를 걱정한 것은 富의 所有 그 자체가 不義이기 때문이 아니라, 富의 不均等한 分配로부터 결과된 政治的 不安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文學 역시 “外國之利” 그 자체를 不義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야기될 中國의 不利를 경계한 것이다. 즉 大夫側의 征伐論이 文學側에 의해 비판되어야 할 까닭의 하나는 그것이 빼앗는 者에 대한 不義이기 때문이 아니라, 뺏는 者에 대한 不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文學의 義은 天下(= 中外를 포함한 全世界)의 義가 아니라 中國의 義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文學의 義 역시 하나의 利라고 할 수 있다.

今公卿辨議，未有所定，此所謂守小節而遺大體，抱小利而忘大利者也。(6, 復古)

라는 文學의 말을 빌린다면, 大夫側의 利는 小利이고 文學側의 利는 大利

다. 兩者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文學側의 利(義)는 內的인 것이고 大夫側의 利는 外的인 것이라는 것 뿐이다. 즉 文學側은 “外國之利” “邊郡之利”를 포기함으로써 中國의 經濟的・政治的 安定이라는 大利를 취하는 것이며, 大夫側은 後者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前者를 취하는 것이 中國에 더욱 有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大夫의 利가 大利이고 文學의 利는 小利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大夫의 目的은 中國의 利益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文學의 궁극적 目的은 王朝(혹은 政權)의 安全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大利와 小利를 판론할 필요는 없다. 단지 兩側의 義利論이 對外的 征伐論과 德化論의 또다른 出發點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③ 內와 外

文學側의 利(義)가 內的인 것으로 제한된 반면 大夫의 利가 外的인 것을 지향하였음은 곧 兩側의 關心이 집중되는 대상이 內外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文學側의 關心은 中國內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大夫側의 關心은 中國外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와같이 兩側의 관심이 대상을 달리하고 있었음은 그들의 世界意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大夫는

鄒子疾晚世之儒墨不知天地之弘，昭廣之道…於是推大聖終始之運，以喻王公，先列中國名山通谷，以至海外，所謂中國者，天下八十一分之一，名曰赤縣神州，而分爲九州，絕陸陸不通，乃爲一州，有大瀛海圍其外，此所謂八極，而天地際焉，禹貢亦著山川高下原隰，而不知大道之運，故秦欲達九州而方瀛海，牧胡而朝萬國，諸生守畦畝之慮，閭巷之固，未知天下之義也之(53, 論鄒)

라 하여, 鄒衍의 大九州說을 인용하면서 文學側의 협소한 世界觀을 비웃었다. 이에 대하여 文學側은

堯使禹爲司空，平水土，隨山刊木，定高下而序九州鄒衍非聖人，作怪誤，惑六國之君以納其說，…近者不達，焉能知瀛海，故無補於用者，君子不爲，無益於治者，君

子不由，…昔秦始皇已吞天下，欲并萬國，亡其三十六郡，欲達瀛海，而失其州縣，知大義如斯，不如守小計也。(53, 論鄒)

라 하여, 鄒衍의 大九州說을 無用無益한 怪說로 차치하면서, 가까운 곳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어찌 먼 곳을 알 수 있느냐고 응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文學側의 世界가 禹貢의 九州였음에 반해, 大夫側의 世界는 鄒衍의 大九州(大天下)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秦의 世界政策에 대한 兩者의 評價가 이와같은 世界觀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는 兩者의 世界觀이 關心의 대상범위를 결정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文學側이 “秦이 瀛海에 이르러 하엿다가 오히려 그 州縣을 잃었다”함은 그들의 關心이 “瀛海” 즉 中國外에 있는 것이 아니라, “州縣” 즉 中國內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大夫側에서 秦이 大九州와 瀛海에 이르러 하여 萬國을 지배 하엿다”함은 그들의 關心이 大九州와 瀛海 즉 中國(禹貢九州)外에 있었음을 의미한다.³²⁾

이와같이 상이한 關心의 범주는 마침내 內郡과 邊郡에 대한 評價를 달리 하게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兩側의 對外政策의 方向을 결정지었다. 왜냐하면 內郡은 中國을, 邊郡(外郡)은 周邊民族의 原居住地를 각각 의미하며, 兩者의 價値에 대한 평가는 곧 兩者의 關係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兩者에 대한 文學의 평가를 살펴보자.

邊郡山居谷處，陰陽不和，寒凍裂地，衝風剽鹵，沙石凝積，地勢無所宜，中國天地之中，陰陽之際也，日月經其南，斗極出其北，含衆和之氣，產育庶物，今去而侵邊，多斥不毛寒苦之地，是猶棄江皋河濱，而田於嶺坂菹澤也。(14, 輕野)

여기서 文學은 中國과 邊郡을 反對概念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兩者의 가치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中國은 풍요한

32) 大夫와 文學의 상위한 關心은 世界(天下)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지었다. 예컨대 大夫는 大九州說을 받아들여 “夫中國，天下復心”(論功)이라 하였고 文學은 “夫山東，天下之腹心”(口疾)이라 하였다. 前者의 天下는 中國을 포함하나 後者의 天下는 中國과 일치한다.

物資의 비옥한 產地이지만, 邊郡은 척박한 “不毛寒苦之地”이므로, 中國을 버리고 邊郡을 경영하는 일은 마치 “江臯河濱”을 버리고 “嶺坂菹澤”에서 경작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大夫側은, 前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풍요한 “邊郡之利”를 강조하였다. 大夫側에 의하면, 오히려 中國은 높은 人口密度에 비해 生産의 效率性은 낮은 곳이어서 百姓이 빈곤하고 衣食이 부족하나, 邊郡에서는 中國에서 부족한 物産이 풍부하게 취득될 수 있다. 요컨대 邊郡은 文學側에게는 “不食之地”요 “無用之地”이지만,³³⁾ 大夫側에게는 “有用之地”였던 것이다.

中國과 邊郡에 대한 文學側의 評價는 당연히 重內輕外의 論理로 발전하게 된다.

① 聞文武受命，伐不義以安諸侯大夫，未聞弊諸夏，以役夷狄也。(6, 復古)

② 秦南禽勁越，北卻強越，竭中國以役四夷。(43, 結和)

③ 不牧之地，不羈之民，聖王不加兵，不事力焉，以爲不足煩百姓而勞中國也。(52, 論功)

이상과 같은 文學側의 주장에 의하면, 夷狄을 복속시키기 위하여 中國을 疲弊하게 할 수는 없다. 즉 “夷狄”(=邊郡)이라는 小利를 취하기 위하여 “中國”(=內郡)이라는 大利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邊郡의 가치를 中國의 아래에 둘을 의미한다. 또한 中國의 大利란, 前述한 바와 같이, 中國의 經濟的·政治的 安定을 가리킨다. 요컨대 文學側은 “邊郡之利”를 추구하는 한 中國의 疲弊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며,³⁴⁾ 前者를 위하여 後者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33) 文學側은 여러차례에 걸쳐 邊郡(즉 周邊民族의 居住地)이 “不食之地”요 “無用之地”임을 강조하였다. ① 夫蠻貊之人，不食之地。(12, 憂邊) ② 匈奴處沙漠之中，生不食之地。(38, 備胡) ③ 略無用之地，立郡沙石之間。(43, 結和) ④ 窮無用之地，亡十獲一。(42, 擊之)

34) 大夫側은 武帝時代에 추진된 開邊정책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當此之時，將卒方赤面而事四夷，師旅相望，郡國並發，黎人困苦，姦僞萌生，盜賊並起，…當此時，百姓元元，莫必其命，故山東豪桀，頗有異心，賴先帝聖靈斐然，其咎皆在於欲舉匈奴而遠幾也”(46, 西域). 이외에도 中國의 利와 邊郡

그러나 大夫側의 價値觀은 文學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 그들은 邊郡의 가치를 中國의 우위에 두지는 않았지만, 中國의 利를 강조하기에 앞서 邊郡의 利를 먼저 강조하였다. 즉 先外後內의 논리였다고 할 것이니, 그 論據는 다음과 같은 大夫의 주장 가운데서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① 中國恬臥者，以邊郡爲蔽扞也，……邊境強則中國安，中國安則晏然無事。(16, 地廣)

② 中國與邊境，猶支體與腹心也，夫肌膚寒於外，腹腸疾於內，內外之相勞，非相爲助也，…故無手足則支體廢，無邊境則內國害。(44, 誅秦)

③ 飭四境所以安中國也。(49, 繇役)

즉 中國과 邊郡의 關係는 腹心和 支體, 腹腸과 肌膚의 內外關係와 같아서 邊郡(=邊境)을 경영하지 않고서는 中國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文學이 邊郡의 利에 앞서 中國의 利를 강조하였는데 반해, 大夫는 中國의 利에 앞서 邊郡의 利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大夫側은 “初雖勞苦，卒獲其慶”(44, 誅秦)이라 하여 中國의 일시적 희생을 요구하였으며, 혹은 “散中國肥饒之餘以調邊境”(16, 地廣)이라 하여 鹽鐵政策의 不可避性을 변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文學側이 中國과 邊郡의 가치를 差等的으로 파악하였음에 반해, 大夫側은 兩者의 가치를 일치시켰다.

그러면 文學側의 關心이 內(=中國)에만 국한되고 大夫側의 關心이 外(=邊郡)에까지 미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 즉 兩者의 관심의 범위 혹은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 論理的 根據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兩者의 論理가 출발하는 곳, 즉 仁義와 刑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儒家의 仁은 差等愛의 개념이다. 예컨대 仁의 孝·悌 등은 墨家의 兼愛 論에 의해 철저하게 비판되었다. 이에 반해 法家의 法은 그 적용의 대상

의 利를 相反되는 것으로 對比시키는 文學側의 論理는 자주 발견된다. ① 今中國弊落不憂，務在邊境。(16, 地廣) ② 地彌遠而民茲勞。(11) ③ 夫用軍於外，政敗於內。(38, 備胡) ④ 秦知進取之利，而不知鴻門之難。(43, 結和) ⑤ 安能忍殺其赤子以事無用，罷弊所持而達瀛海乎。(54, 論菑) 등.

을 差別하지 않는다. 그것은 法의 所由인 君主를 제외한 모든 國家의 구성원에게 平等하다. 따라서 仁과 法은 각각 差等과 均等の 屬性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우리는 文學側의 對外政策이 儒家의 仁義論에 근거하였고 大夫側의 世界政策은 法家의 刑法論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文學側의 對外的 德化論에 仁의 差等的 屬性이 작용하고 大夫의 征伐論에 法의 均等的 屬性이 작용할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예컨대 文學側은 鹽鐵論爭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德의 差等的 배품”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古者親近而疏遠，貴所同而賤非類。(29, 散不足)
- ② 恩施由近及遠，而蠻貊自至。(40, 誅秦)
- ③ 仁者，愛之効也，義者，事之宜也，故君子愛人以及物，治近以及遠。(55, 刑德)
- ④ 夫治國之道，由中及外，自近者始，近者親附，然後來遠，百姓內足，然後郵外。(16, 地廣)

여기서 文學側은 近과 遠, 內와 外에 대한 仁義의 미침은 差等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먼저 內와 近에 仁義가 미친 연후에 外와 遠에까지 德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差等愛의 개념이 그들의 人性論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內와 外 (=近과 遠) 즉 中國과 外夷를 구분하는 까닭이 兩者의 本性的 異質性에 기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外夷의 本性이 惡하기 때문에 中國과 區別하는 것이 아니라, 外夷가 中國의 同類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한 것이다. 요컨대 文學側이 회망하는 “仁愛의 미침”은 一律的인 것이 아니라 段階的인 것이었다.

王者의 德(혹은 仁)이 內(=近)에 베풀어진 연후에 外(=遠)에까지 미쳐야 한다 함은 곧 外의 완성은 內의 완성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內의 문제가 해결되면 外의 문제 역시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外의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內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다. 文學이 征伐와 같은 직접적 방법보다는 中國의 經濟的・政治的 安定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中國이 安定되면 外夷가 中國에 스스로 歸服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³⁵⁾

이에 반해 大夫側은 近과 遠, 內와 外를 차별하지 않았다. 그들은

王者包含并覆, 普愛無私, 不爲近重施, 不爲遠遺恩, 今俱是民也, 俱是臣也. (16, 地廣)

라 하여, 遠近과 內외의 구별없이 균등하게 “普愛”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遠近과 外內가 모두 “王者”(=皇帝)의 臣民이기 때문이다. 內郡과 外郡(=邊郡), 中國과 外夷를 함께 皇帝의 支配對象으로 파악하는 이상, 重內輕外의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와같이 우리는 對外的 德化論과 征伐論의 또다른 근거를 仁과 法의 屬性, 즉 差等愛와 “普愛”로부터 발견할 수도 있다. 仁 概念이 宗法的 封建論으로부터 태어난 儒家의 中心概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文學側이 同類의 利益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또한 法概念이 君主의 一元的 人民支配를 희망한 法家의 基本概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中國과 外夷에게 균등하게 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大夫側의 주장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양측의 논리가 철저히 仁義와 刑法概念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④ 古와 今, 言과 行

鹽鐵論爭의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고 격렬하게 제기된 또하나의 爭點은 古와 今, 즉 歷史觀의 대립이었다. 對外問題에 대한 文學側과 大夫側의 날카로운 대립은 그들의 상반된 歷史觀으로 인하여 더욱 첨예화하였다.

35) ① 恩施由近及遠, 而蠻貊自至. (44, 誅秦) ② 任德則…遠國不召而自至. (47, 世務) ③ 德行延及方外…蠻貊異國, 重譯自至. (〃)

大夫側이

所謂文學高第者，智略能明先王之術。(20, 相刺)

이라 하고, 또한 文學側 스스로

賢良文學之士，乘傳詣公車，議五帝三王之道，六藝之風。(6, 復古)

이라 하였듯이, 賢良文學은 이른바 “古術”에 통달한 儒者들이었다. 그들은 孔孟의 尙古의 歷史觀을 계승하여 三王時代를 칭송하고 三代之 古道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文學은

諸生…復往古之道，匡當世之失。(27, 利議)

이라 하고, 賢良 역시

各反其本，復諸古而已。(39, 執務)

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大夫側은 時代的 狀況의 變化를 강조하면서 各時代에 적합한 새로운 道를 모색·건설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大夫는

① 湯文繼衰，漢興乘弊，一質一文，…物極而衰，終始之運也。(4, 錯弊)

② 虞夏以文，殷周以武，異時各有所施。(59, 大論)

라 하여, 時代의 變化에 따라 相異한 治術이 운용되었음을 지적하였고, 御史 역시

時世不同，輕重之務異也。(58, 詔聖)

라 하여 時世의 變化에 따라 時務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桓寬도

桑大夫，據當世，合時變，…不師始古。(60, 雜論)

라 하여, 大夫側이 “時變”만을 중시하여 “始古”는 본받으려 하지 않았

다고 비난하였다. 요컨대 文學側이 본받으려한 時代가 先王의 時代였음에 반해, 大夫側이 제시한 價値의 判斷基準은 “當世”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兩側의 상반된 입장이 古와 今의 대립과 상충하고 있으며, 兩側의 대립적인 歷史觀이 文學側과 大夫側의 상반된 現實的 立場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文學側과 大夫側의 歷史觀은 단순한 尙古主義와 進歩主義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反體制的 立場과 體制擁護의 立場을 각각 대변하였던 것이다. 大夫側의 今은 既存體制 그 자체를 의미하며, 文學側의 古는 今을 改革할 수 있는 反體制的 論據로써 제시되었다. 文學側의 政治的 理想은 現實의 制度를 保守하는 것이 아니라, 古代의 盛世에 假託하여 現代의 불만스러운 既存秩序를 혁파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歷史觀은 復古主義 혹은 尙古主義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保守主義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歷史意識 가운데는 오히려 既存體制를 타파하려는 進歩的 改革意志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大夫側은 原始法家の 發展論的 歷史觀을 援用하여 “當世”의 價値를 옹호함으로써 文學側의 現實批判를 완화하려 하였다. 따라서 大夫側의 歷史觀은 進歩主義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現實擁護의 保守主義的 立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당면과제는 文學의 批判으로부터 今(=既存體制=武帝時代)을 保守하는 일이었다. 大夫側에서

- ① 今賢良文學…信^レ往^レ而^レ乖^レ於^レ今. (10, 刺復)
- ② 諸生…信^レ往^レ疑^レ今. (54, 論菑)
- ③ 文學…道^レ古以^レ害^レ今. (23, 遵道)
- ④ 儒者…稱^レ往^レ古而^レ瞽^レ當^レ世. (24, 論誹)
- ⑤ 時世異務, 又安可堅^レ任^レ古^レ術而非^レ今^レ之理也. (28, 國疾)

라 하여, 古로써 今을 비판하는 文學側을 누누히 비난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文學側의 “信往” “道古” “任古術” “稱往古” “復往古之道”는 모두 “疑今” “害今” “非今” “瞽世” “匡當世之失”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文學側과 大夫側의 古今是非는 원칙적으로는 原始儒家와 法家の

歷史觀으로부터 繼承된 것이지만, 兩側의 現實의 立場의 對立으로 인하여 反體制와 體制擁護의 논리적 근거로 이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今, 즉 既存體制란 武帝時代의 그것을 의미하여,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具體적으로 규정한다면 今은 곧 武帝時代に 구축된 世界秩序를 가리킨다.³⁶⁾ 따라서 文學側과 大夫側의 古今是非는 武帝時代의 世界政策에 대한 贊反을 준비하는 緒論이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文學側의 對外的 德化論과 大夫側의 征伐論이 다시 仁義와 刑法으로 歸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仁義는 古(=先王時代)의 價値이고, 刑法은 今(=當世)의 價値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言과 行의 論爭에 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言과 行은 그 자체로서도 鹽鐵論의 주요한 爭點의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古今是非와도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大夫側은 文學側의 論議에 포함된 가장 큰 虛點의 하나로서 그들의 言行不一致와 實現不可能性을 지적하였다. 즉

- ① 今晚世之儒勳德, 時有乏置, 言以爲非, 因此不行, ...猶覽者能言遠不能行也. (11, 論儒)
- ② 文學能言而不能行. (16, 地廣)
- ③ 今文學言治則稱堯舜, 道則孔墨, 授之政則不達, 懷古道而不能行, 言直而行枉, 道是則情非. (20, 相刺)
- ④ 儒者口能言治亂, 無能以行之, 能言而不能行者, 君子恥之矣. (40, 能言)

라 하여 文學側의 言行不一致를 비난하는 한편,

- ① (文學)言之易, 而行之難. (27, 利議)
- ② 賢良文學之言, 深遠而難行. (39, 執務)
- ③ 諸生言以德懷之(=匈奴), 此有其語而不可行也. (47, 世務)

36) 大夫側의 今에는 秦代도 포함된다. 즉 大夫側은 秦代 이후 鹽鐵論爭의 當世까지를 今으로 보았으며, 高帝 이후 文景帝時代는 一時的 反動期로 파악하였다. 이에 반해 文學側의 古는 秦 이전의 時代 특히 五帝 이후 西周時代를 의미하며, 高帝 이후 文景帝時代는 古道가 一時的으로 恢復되는 時代로 이해하였다.

라 하여 文學의 言語는 實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大夫側에 의해 지적된 文學側의 두 가지 결함은 사실상 別個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文學側의 言行이 一致되지 않음은 實務에 무능한 讀書人이라는 文學의 身分의 特殊性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³⁷⁾ 무엇보다 큰 이유는 그들의 言語가 매우 非現實의인 것이라는 데 있다. 즉

- ① 今賢良文學，…道古而不合世務，意者不足以知士也，將多飾文誣能以亂實邪。(10, 刺復)
 ② 文學言治尙於唐虞，言義高於稱天，有華言矣，未見其實也。(20, 相刺)
 ③ 儒者華於言而寡於實。(24, 論誹)

이라는 大夫側의 지적과 같이, 文學의 論議는 매우 高尚하나 現實에 근거하지 못한 空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文學側의 文化的 解決方法, 즉 中國의 高貴한 文化(=禮義)를 보임으로써 夷狄으로 하여금 스스로 中國에 歸服케 하자는 주장은 匈奴 등 強敵이 엄존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現實의 說得力을 갖기 어렵다. 障塞와 關梁을 철폐하여 匈奴와 더불어 信義를 교환하자는 利親論 역시 大夫側에서 볼 때는 매우 非現實의인 空論이다. 이와같은 文學의 非現實性이 옛 價值(=仁義)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들의 尙古의 歷史觀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은 再論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文學側과 大夫側의 古今是非는 兩者의 理想論과 現實論을 배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文學側의 입장을 理想主義的이라 하고 大夫側의 입장은 現實主義的이라고 단언하는 일은 일단 보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導論에서도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大夫側이 帝國의 世界秩序를 지향하였음에 반해 文學側은 皇帝에 의한 世界의 一元的 支配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妥協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 關心의 범위를 中國 內問題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大夫側은 實現不可

37) (大夫曰)賢良文學不明於縣官事。(41, 鹽鐵取下)

한 理想만을 추구하였고 文學側은 實現 가능한 現實에 安住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鹽鐵論爭에 참여한 大夫側과 文學側의 對外問題에 대한 主張들이 어떠한 論理的 根據에 의거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兩側의 思想的 背景이 되었던 儒家思想和 法家思想의 核心概念인 仁義와 刑法의 意味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식을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文學側의 仁義는 人間의 本性에 대한 긍정적 信賴에 근거하였다. 文學側은 華夷의 人間의 本性을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와같은 文學側의 華夷觀은 儒家의 本性論에서 출발한 것으로, 異民族을 德化할 수 있다는 文學側信念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文學側의 仁義는 利의 추구를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文學側으로 하여금 武功에 의해 획득될 外國의 利에 대하여 關心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인도하였다. 또한 儒家의 仁은 差等愛였으므로 文學側은 邊郡의 價値보다는 中國內郡의 가치, 즉 中國의 政治的·經濟的 安定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仁義는 古代의 價値를 의미하였으므로, 文學側은 다분히 非現實的이며, 反體制的인 立場을 고집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大夫側의 刑法은 人間의 本性에 대한 不信에 근거하고 있었으므로 大夫側의 華夷觀은 種族的 差等意識을 포함하게 되었다. 大夫側의 對外的 征伐論은 外夷의 本性에 대한 不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大夫側의 法은 본질적으로 利, 즉 國家와 民의 利益을 위해 존재하였다. 따라서 中國을 위해 外國(혹은 邊郡)의 利를 추구한다는 征伐論의 目的이 설정되었다. 또한 法은 萬民에게 平等하다는 屬性을 갖고 있었으므로, 法의 적용대상에는 당연히 中外가 함께 포함되어야 했다. 따라서 大夫側에

게 있어서는 刑法의 일종인 征伐이 中國외의 夷狄에게 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와 더불어 法은 古代의 價値가 아니라 現代의 價値였으므로, 法에 의거한 大夫側의 입장은 現實의이고 體制擁護의이었다.

이와같이 우리는 仁義와 刑法의 諸屬性 즉 儒家思想과 法家思想의 人性論, 義利論, 差等愛와 普愛의 觀念, 혹은 歷史觀 등으로부터 文學側과 大夫側이 제시한 相反된 世界政策 (즉 德化論과 征伐論)의 論理的 根據를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知識을 정리하는 일에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의 궁극적 關心은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鹽鐵論爭에 참여한 文學側과 大夫論의 論據가 아니라, 이른바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的 基礎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 이루어진 作業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은 過程에 지나지 않는다.

筆者는 本稿에 앞서 漢代의 中國의 世界秩序에 포함된 몇 가지 構造의 特性을 파악하는 일에 관심을 모은 바 있었다.³⁸⁾ 여기서 筆者는 漢代의 中外關係를 4가지 類型으로 大別하고, 各類型의 制度的形式과 意味를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나, 中外關係의 여러 類型이 成立하게 된 理論的 基礎에 대해서는 전혀 論及하지 못하였다. 本稿를 준비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한 目的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도 兩者의 理論的 對立이 克服되어 中華主義라는 하나의 思想으로 綜合되는 論理的 過程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나, 本稿에서는 筆者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鹽鐵論爭의 결과가 文學側의 勝利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여러가지 正황으로 미루어 보아, 西漢後期 이후에 전개되는 中國의 世界秩序의 理論的 基礎는 주로 文學의 論理로부터 공급되었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大夫側 論理가 철저하게 疏外되었던 것으로 단언할 수도 없기 때문에 兩者가 서로 糾絀·종합되는 過程을 검토하는 일은 결코 省略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別稿를 준비하고자 한다.

38) 拙著, 『古代 中國의 世界秩序研究』(一潮閣, 1982. 8) 第3章 參照.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Chinese World Order Exhibited in the Debate on Salt and Iron

Kim, Han-gyoo

A famous book entitled "Discourses on Salt and Iron" is good historical material which gives us a mine of information abou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hinese world order. The debate on salt and iron was that not only on salt and iron but also on world policy. In this debate, Ta-fu(大夫), who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bureaucracies joined in the dispute, asserted to conquer the Ssŭ-i (四夷; the peripheral nations), but Wên-hsüeh(文學), who were a group of the scholarly gentry joined in this debate, claimed to conciliate them peacefully.

The logical bases of both parties were the jên-i(仁義; love and justice) concept and the hsiang-fa (刑法; penalty and law) concept, because Ta-fu was a typical legalist and Wên-hsüeh were confucianists.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e theoretical ground of both sid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jên-i concept and the hsiang-fa concept.

First, the jên-i concept is based on affirmative trust in human nature; hence the Wên-hsüeh believed that the human nature of the Chinese and the peripheral nations was of the same quality. But the hsiang-fa concept is based on distrust in human nature; hence Ta-fu believed that the human nature of the peripheral nations was more low and evil than that of the Chinese intrinsically.

Secondly, the jên-i concept is contrary to the li(利; profit) concept;

hence the Wên-hsüeh group were unconcerned about the profit gained by conquering others. But the hsiang-fa exists for the profit of the nation and people; hence Ta-fu had an interest in the profit gained by conquering the Ssü-i.

Thirdly, because the jên(仁) of the confusianists is a kind of graded love, the Wên-hsüeh had more interest in the problems of the Chung-kuo (中國) than in those of the peripheral nations. But the fa (法) is the universal and equal one; hence Ta-fu was concerned not only about the Chung-kuo but also about the Ssu-i.

Fourthly, the jên-i is not the value of the present time but the value of the old times; hence the position of the Wên-hsüeh was an impractical and idealistic one. But because the fa is the value of the present time, the position of Ta-fu was a realistic and actualistic one.

As stated above, we can understand the theoretical ground of both sides through the meaning of the jên-i and the hsiang-fa concepts, but the logical process that both were synthesised into one systematic theory of the Chinese world order could not be referred to in this thesis.